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26. 그랑 까페 데 기혼 (Gran Café de Gijón)

1월 13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깼다. 아직 날은 완전히 밝지 않았고 사방은 조용했다. 어스름한 밖에는 멀리 동이 터 오고 있다. 스페인은 자연의 색채가 강렬해 동터 오는 새벽조차 선명한 붉은빛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일정을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스페인의 옛 수도 톨레도(Toledo)를 찾아가는 날이다.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하루 만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현지 관광회사를 통해 하루 관광코스로 다녀올 예정이었다. 관광 예약은 마드리드에 오기 전에 미리 했었고 오늘은 까예 페라즈에서 10시 30분에 떠나는 관광버스를 타기만 하면 된다.

8시 30분쯤에 날이 완전히 밝아서 R을 깨웠다. 어제 많이 힘들어서 기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가뿐하다고 한다. 나도 그리 피곤하지 않았다. 어제 까사 루쵸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푹 쉬어서 그런지 7시간쯤 자고 나니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마드리드의 월요일 아침 거리로 나섰다.

한적하고 느린 분위기의 일요일은 끝나고 쌀쌀한 겨울 월요일 속으로 마드리드 사람들이 부지런히 출근 중이다. 우리는 카스테야나 길을 쭉 내려가 플라자 데 시벨레스 근처에 있는 카페 기혼으로 가 아침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랑 카페 데 기혼이라고도 불리는 카페 기혼은 스페인 내전이 끝난 후 '36 세대' 라 불리는 스페인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모여 들었던 문학 카페라고 들었다.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에 스페인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주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명한 문학 카페여서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찾아 온다고 한다. 우리는 이왕이면 마드리드의 유서 깊은 곳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카페 기혼으로 가기로 했다.

약 7분쯤 걸어가니 오른쪽으로 카페 기혼이 나타났다. 길 쪽으로 넓은 창문이 나 있는 큰 카페였다. 내부는 아주 넓었고 오래 된 유럽 카페 분위기가 물씬했다. 아침인데도 어두컴컴한 내부는 고풍스럽기보다는 낡았다는 표현이 알맞는 실내 장식과 가구들로 꽉 차 있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입구 가까이 앉은 한국인 중년 부부 두 커플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들려서 한국인인 줄 알았다. 글 쓰는 분들인지 문학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잠시 서 있으니 할아버지 직원이 나와 우리를 맞았다. 아침 식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창문 옆 테이블로 안내해 준다. 앉고 보니 구석에 있는 자리여서 카페 내부 전경이 훤히 다 보이고 길 밖도 잘 보여 아주 좋은 자리였다.

우리 테이블은 대리석이었는데 다른 테이블은 재질과 색깔이 다 제각각이다. 자세히 둘러보면 테이블과 의자들이 하나도 짝이 맞는 것이 없었다. 오랜 세월 물려받으며 간직해 온 것인지 문학 카페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 그런대로 운치가 있긴 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문학인 커플들은 일어나 떠났고 카페 기혼은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한때 스페인의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밤낮으로 모여 들었던 이곳이 이제는 텅비어 있는 것을 보니 어쩐지 유령 카페에 온 듯 서글픈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의자에 푹 기대어 앉아 벽에 걸린 온갖 사진들과 그림들을 보며 카페 기혼 전성기의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주문한 아침 식사가 나왔다. 빵 꼰 토마테(Pan con Tomate)와 함께 나는 카페 봉봉(Caf□ Bon Bon), R은 카페 꼰 레체(Caf□ con Leche)를 마신다. 카페 봉봉은 커피 컵 반까지 연유를 듬뿍 부어 넣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부어 준 커피 음료이다. 저어 보면 스푼 위에 연유가 덩어리져 올라 온다. 데카당스의 극치같은 이 커피를 한 모금 맛보니 이 세상 맛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하지만 딱 한 모금만 먹어야지 한 컵 다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은 맛이다. R도 한 모금 맛보더니 맛있다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아침에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 이런 지방 폭탄 덩어리를 매일 마셔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무 맛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 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Supplement Plan (PPO)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PT) / 작업치료 (OT) /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EquitySource
직판매 PROGRAM
저희가 부동산 커미션 없이 10일안에 집을 사드립니다
1 24시간 안에 현찰 구입 가격을 받으시고, 클로징 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세요 (50주 가능) NO showings, NO open house, NO repairs
2 판매후 1년까지 시세 가격으로 렌트 가능 Sell & Stay: Lease back up to 1 year after sale
3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최선의 매물을 찾아드리고, 저희의 자금으로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리스팅 PROGRAM
저희와 리스팅을 하시면 시세 최고의 가격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십니다.
1 $100,000 까지 0% 이자 융자 제공 (새집 down payment, 집수리 renovation, 이사 비용, 등등)
2 MLS 리스팅 이후 판매가격 최대를 못받으시면 저희가 구입하는 Guarantee Program Includes: 전문 드론 사진촬영, 3D virtual tour, SNS 광고
3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Listing 동시에 이사하실 집을 저희의 자금으로 먼저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DIRECT 949-245-2662
S. California Office: 7035 Orangethorpe Ave Ste E, Buena Park, CA 90621
Las Vegas Office: 5940 S. Rainbow Blvd. Las Vegas, NV 89118
DRE LICENSE # 02111255 - CALIFORNIA REAL ESTATE BROKER CFL LICENSE # 60DBO-112262 - CALIFORNIA FINANCE LENDER